

내 인생의 동반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을지대학교 석좌교수
김유영

내 인생에는 나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동반자들이 있다. 그것은 알레르기학을 함께하는 동지들과 제자들, 그리고 나와 함께 산을 찾는 친구들이다. 대학의 알레르기학교실과 대한천식알레르기학회가 나를 학문에 눈 뜨게 하고 성장시켜 알레르기학이라는 풍요로운 터전을 마련해 준 곳이라면, 나를 육체적으로 강건하게 하고 정신적으로 풍요롭게 만든 곳은 산이다.

스승이신 강석영 선생님의 이끄심으로 알레르기학에 몸담은 이래 알레르기학의 발전을 위하여 일심으로 진력하면서 형제 같은 우의를 나눈 학회의 동지들, 그리고 나를 가부장처럼 따르며 연구에 매진하고 서로 가족 같은 정을 나눈 교실의 제자들이 있어 나의 오늘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분들과는 단순히 알레르기학이라는 학문적 매개를 통하여 가까워진 사이라기보다는 알레르기학에 대한 넘치는 사명감과 두터운 동지의식으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한 가족 같은 공동체로서 긴밀한 유대감을 서로 갖게 된 것이다. 화합의 공동체 틀 안에서 열 둔 논쟁도 하고 서로 친밀한 교류도 함께 나누는 것이 우리 알레르기학을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아닌가 한다.

중학교 때 시작한 나의 등산 경력은 이제 만 50년이 넘었다. 산을 왜 가는가 라고 묻는다면 사실 즉답을 하기 어렵다. 다만 고산을 오르는 프로 알파니스트들이 고독하게 자기 자신만을 시험하면서 극한의 경지를 경험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까지도 내어 놓는 것을 볼 때, 아마도 우리 인간에게는 태초의 의식 깊은 곳에 존재하는 산에 대한 신비한 갈망이 있어 우리를 그 곳으로 이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산이 우리를 부르는 것이다.



그림 1. 히말라야 안나푸르나에서

산이 좋고 친구가 좋아 같이 산에 다니는 친구들, 이들과 함께하면 산에서는 세속을 잊는다. 어떤 조건도 없고 아무 부담도 느끼지 않는 허물없는 친구들, 만나면 그저 반갑게 웃는다. 수 없이 많은 산을 같이 다니고 해외 원정 시에는 몇 주씩 숙식을 같이 하니 형제 이상으로 친밀한 정을 나누게 되는 것이다. 등산에서 배울 점이 있다면 그것은 상대에 대한 배려이다. 솔로 등반이 아니라면 등산은 같이 오르는 것이고 함께 가는 파트너가 주저앉으면 나도 더는 오를 수 없기 때문이다.

힘들게 산을 오른 후에 마침내 정상에 올라서 맞이하는 성취감은 그 여정이 힘들수록 오래간다. 마찬가지로 고생하며 어렵게 얻은 연구 결과는 그 보람이 더욱 크다. 결과 못지 않게 과정도 중요한 것이다. 내 인생의 반경을 넓혀 주고, 그 곳에 나의 보금자리를 있게 한 동반자들이 있어 나는 별 탈 없이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꾸준히 알레르기학을 함께 할 동지들과 제자들, 그리고 건강이 유지되는 한 같이 산에 다닐 친구들과의 평화와 성취의 나눔이 계속되길 기원한다.